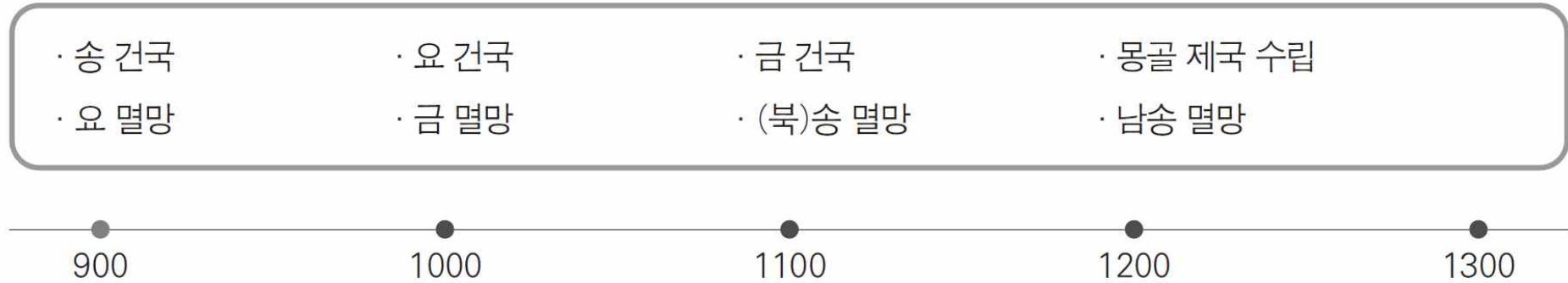


▶ 10 ~ 13세기 새로운 왕조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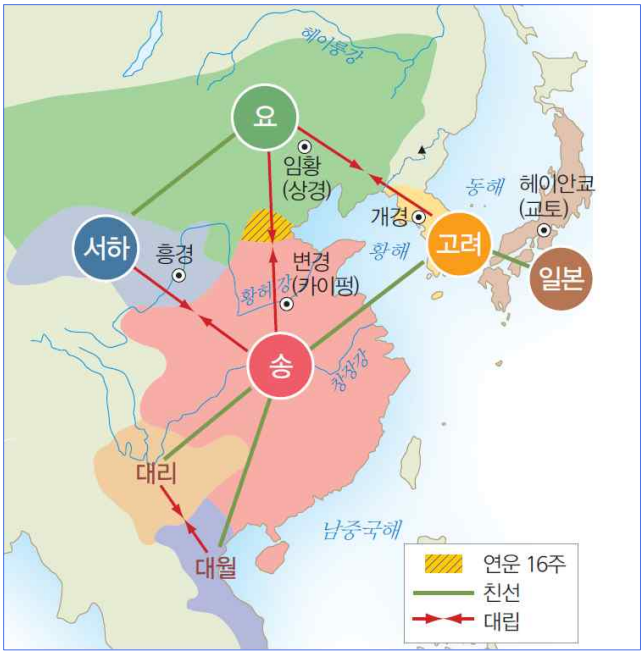


랴오허 강 상류	• 거란 → 요(遼) 건국
중원	• 5대 10국의 분열 시대(907 ~ 960) → 송 건국(960 ~ 1279)
중국 서북 지역	• 탕구트 족 → 서하 건국(1032), 칭제건원(1038)
한반도	• 후삼국 시대(901 ~ 936) → 고려의 건국(918)과 후삼국 통일(936)
일본 열도	• 헤이안 시대(794 ~ 1185) → 가마쿠라 막부(1185 ~ 1333), 미나모토노 요리토모(1147 ~ 1199)의 쇼군 책봉(1192)
북부 베트남 지역	• 응오 왕조(939 ~ 944) → 리 왕조(1009 ~ 1225) → 쩐 왕조(1225 ~ 1400)
만주 지역	• 여진 → 금(金) 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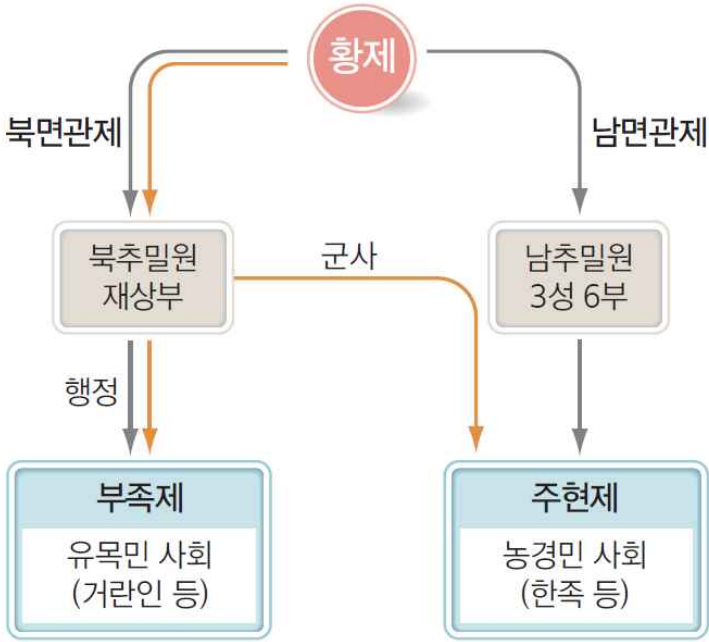
10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국가들이 나타나 국제 질서가 재편되었다. 랴오허 강 상류 지역에서는 거란(요), 중원에서는 송(宋),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등장하였다. 북부 베트남 지역에서는 대월(1054 ~ 1804), 중국 서북 지역에서는 서하(西夏)가 등장하였다. 12세기에는 만주 지역에서 여진(금)이 성장하여 세력을 떨쳤다. 이 국가들은 서로 사절을 교환하고 교역하면서 다원적인 국제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거란과 송은 자주 군사적으로 대립하였고, 서하도 오랫동안 송과 전쟁을 벌였다. 고려와 거란도 군사적으로 충돌하였다.** 일본은 9세기 말부터 대외 관계에 소극적이 되었다. 오랫동안 교류와 대립을 반복하던 신라와 국교를 단절하고, 견당사(630 ~ 894)의 파견도 중지하였다. 1185년에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에 막부를 세우고, 1192년 일왕에게 쇼군(정이대장군)의 칭호를 받았다. 가마쿠라 막부 역시 대외 관계에 소극적이었으나, 민간 교역이나 문화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야율아보기의 부족 통합과 국가 수립(916) → 발해 정복(926) → 연운 16주 차지(936) → 북송과 전연의 맹약 체결(1004) → 멸망(1125)

거란은 랴오허 강 상류에 살던 유목민으로, 10세기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냈다. 야율아보기(? ~ 926)는 당 말 ~ 5대의 혼란을 피해 거란의 영역으로 망명한 한인(漢人)들의 협력을 얻어 세력을 축적한 후 마침내 거란족 전체를 통일하였다. 이어 칸의 자리에 올라 독립 국가를 세우고, 916년에는 중국을 모방하여 황제라 칭하였다. 그는 동서로 원정에 나서 서남방으로 탕구트 등을 제압하고 세력 범위를 오르도스 지방까지 확장시켰다. 이후 요(遼)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차지하여 송(宋)을 압박하였으며, 고려를 여러 차례 침공하였다. 송은 매년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란과 맹약을 맺었다. 거란은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이원적 통치 제도를 시행하였다. 거란은 농경민과 유목민을 분리하여 통치하는 남면관제(농경민)·북면관제(유목민)를 도입하였다.



<11세기의 동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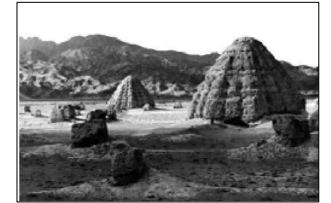
<북면관 · 남면관제>



<거린 문자>

서하 건국(1032) → 칭제건원(1038) → 북송과 강화 조약(군신 관계, 1044) → 둔황 장악과 동서 중계 무역으로 번성 → 칭기즈칸에 멸망(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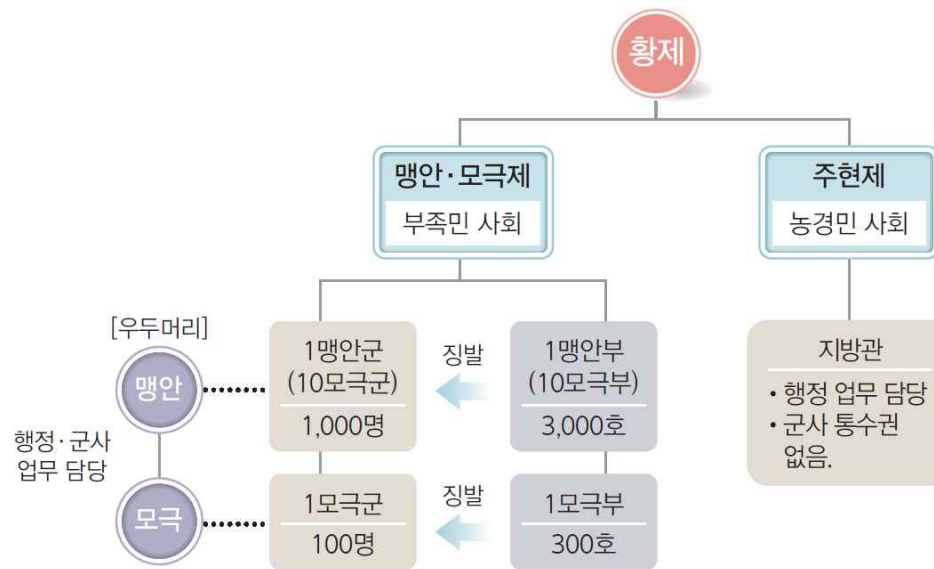
11세기에 탕구트가 세운 서하(西夏)는 비단길을 장악하고 동서 교역을 통해 발전하였다. 서하는 거란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어 평화를 유지하였지만, 송과는 책봉과 교역을 둘러싼 마찰로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송은 매년 비단, 은, 차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하와 화약을 맺었다.



<서하 왕릉(황경)>

아구다(阿骨打)가 부족 통합 후 금 건국(1115) → 북송과 연합하여 요 정벌(1125) → 북송 정복 이후 화북 점령(1127) → 중도 천도(1153) → 멸망(1234)

여진은 만주 일대에서 수렵과 농경에 종사하던 민족으로, 완연부의 아구다가 부족을 통합하여 금(金)을 세웠다. 금은 연운 16주의 회복을 노리던 송과 연합하여 거란을 무너뜨리고, 송마저 공격하여 멸망시킨 뒤 화북 지방을 차지하였다. 거란 대신 동아시아의 강자가 된 금은 비단과 은 등 막대한 물자를 받는 조건으로 강남 지방에 세워진 남송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소흥화의, 군신 관계, 1141). 고려와 서하도 금에 조공하고 교역하였다.



금은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금은 전통적인 씨족 조직이자 군사 조직인 **맹안·모극제**로 유목민을 다스렸고, 농경민은 **주현제**로 통치하는 이원적 통치 제도를 시행하였다.

북송 건국(960 ~ 1126) → 태조(재위 960 ~ 976)의 문치주의 정책 → 왕안석의 신법(1069) → 정강의 변(1126) → 남송 건국(1127) → 남송 멸망(1279)

북송은 **문치주의를 내세워 절도사 세력을 약화하고 황제권의 강화**에 힘썼다. 그 결과 북방 민족 국가보다 군사력이 열세에 놓이자, 그들과 맹약을 맺고 매년 막대한 물자(세폐)를 제공하여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11세기에 **왕안석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신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시행을 둘러싸고 당쟁이 격화되면서 오히려 국력이 약해졌다. 북송이 멸망한 후 임안(항저우)을 수도로 남송이 세워졌다. **남송은 금과의 전쟁을 꺼려 군신 관계를 맺고** 비단과 은 등의 물자를 바쳤다. 그러나 여러 차례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등 두 나라의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지문 확인

북방 민족의 성장과 새로운 외교 질서

① 전연의 맹약(『천재·미래엔 교과서』, p.61·55)

- 송의 황제와 요의 황제는 형제의 교분을 갖는다.
- 송은 요에 해마다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보낸다.
- 양국의 국경은 현 상태로 한다.

- 『속자치통감장편』 권 58

거란과 강화하고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 거란에 매년 은 10만 냥, 비단 20만 필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서로 남조와 북조로 칭하기로 하였다.

- 『송사』

② 와

수도를 포위당한 이(가) 에 큰아버지와 조카 관계를 서약한 국서(國書)를 보내고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다. 얼마 후 이(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 을(를) 공격하였지만 오히려 수도가 함락되고 황제가 사로잡혔다. 이에 일부 황족이 강남으로 옮겨 가 임안(항저우)을 수도로 삼았다.

③ 소흥화약(1141)

지금 와(과) 은(는) 화의를 맺어 화이하 강(淮水)과 대산관을 잇는 선으로 국경을 정합니다. 아울러 은(는) 대대손손 삼가 신하의 절의를 지켜 황제의 탄신일과 정월에 사절을 보내 문안 인사를 여쭙고, 매년 봄에 비단 25만 필과 은 25만 냥을 보내겠습니다.

건국(918) → 후삼국 통일(936) → 만부교 사건(942) → 과거제 실시(958) → 북송과 수교(962) → 거란의 제1차 침입(993) → 강동 6주 획득(994) → 강조의 정변(1009) → 거란의 제2차 침입(1010) → 거란의 제3차 침입(1018) → 천리장성 축조(1033 ~ 1044) → 별무반 조직(1104) → 동북 9성 축조(1107) → 금과 군신 관계 체결(1126)

926년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뒤 고려에 친선을 요구하자, 북진 정책을 추진하던 고려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거란은 북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993년 고려를 침공하였다. 고려의 서희는 송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조건으로 거란의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화약을 맺었다. 이때 고려는 청천강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강동 6주 지역을 차지하였다. 거란은 두 차례 더 고려를 침공하였으나, 고려는 이를 물리쳤다. 이후 고려, 송, 거란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으며, 고려는 거란과 조공 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하였다. 여진이 성장하면서 고려를 위협하자, 윤관은 이들을 물리친 후 동북 지역에 9성을 축조하였다. 이후 여진은 세력을 키워 금(金)을 건국하고 고려에 사대를 요구하였다. 고려 조정에서는 찬반 의견의 대립 끝에,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금에 조공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거란과 금에 대한 조공과는 별도로 여전히 송 및 남송과 해상 교역을 유지하면서 각종 문물을 교류하였다.



<척경입비도>

① 994년 서희의 외교 담판(『천재 교과서, 수능 특강』, p.61·42)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서 일어난 나라이기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소.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랴오허 강 중류 부근)이 모두 우리 땅이거늘 어찌 침범이라 하리오. 또 압록강의 안팎도 모두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거주하면서 두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은 다음에 성을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하면 어찌 (그대 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지 않으리오.

- 『고려사』 서희 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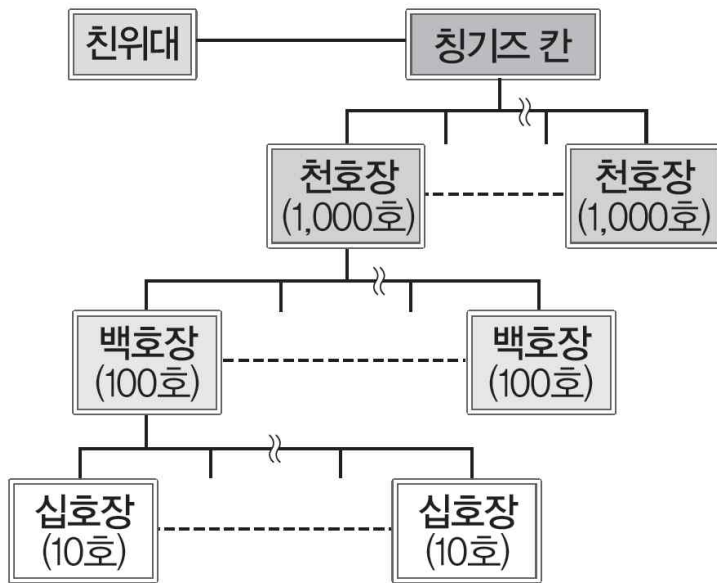
② 고려와 여진의 관계(『금성 교과서』, p.74)

- (1109년) (고려는) “너희가 9성의 반환을 요청했으니 이전에 했던 약속처럼 하늘에 대고 맹세하라.”라고 하였다. 추장 등은 함주 성문 밖에 제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맹세하여 말하기를, “지금 이후 대대손손까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해마다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이 맹세에 변함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망하여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하고 맹세를 마치고 물러갔다.
- (1126년) 백관을 불러 금을 섬길지 말지를 의논하니 모두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겸·척준경 두 사람만 사대를 주장하자 (임금 인종은) 이를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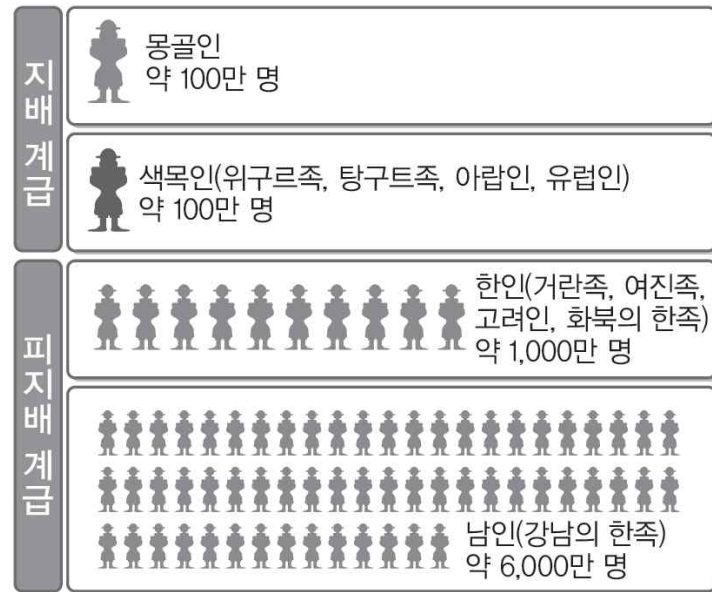
- 『고려사』

테무친의 부족 통합과 몽골 제국 건설(1206) → 호라즘 정복(1220) → 서하 정복(1227) → 고려 침입(1231 ~ 1270) → 베트남 제1차 침입(1257) → 국호 '원' (1271) → 베이징 천도(1272) → 남송 멸망(1279) → 여·원 연합의 일본 원정(1274·1281) → 베트남 제2차 원정(1284) → 베트남 제3차 원정(바이 당 강 전투, 쩌흥다오, 1287) → 멸망(1368)

13세기 초 몽골 초원 지대에서 테무친이 몽골계 부족들을 통합하고 **쿠릴타이에서 칭기즈 칸으로 추대**되었다(1206). 그는 자신의 나라를 **예케 몽골 울루스(Ulus)**, 즉 대원대 몽골국(大元大蒙古國)이라 불렀다. 칭기즈 칸은 **천호·백호제를 군사적 기반으로 하여** 대외 정복에 나섰다. 먼저 서하를 공격하여 조공을 받고 금을 침공하였다. 이어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국을 무너뜨리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그의 후계자들은 동유럽의 키예프 공국을 점령하여 초원길을 손에 넣음으로써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1231년 **오고타이(우구데이) 칸**은 몽골 사신 저고여 살해 사건(1225)을 계기로 고려를 침공하는 한편, 1234년 금을 멸망시켜 유목민 세계를 통합하였다. 1270년 **쿠빌라이 칸**은 고려를 복속한 후 1279년 남송을 정복하여 동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또 고려·몽골 연합군을 조직하여 1274년과 1281년 총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침공하였다. 그러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실패하였다. 몽골군은 3차례에 걸쳐 대월(편 왕조)을 침공하였지만, 쩌흥다오(1228 ~ 1300)의 활약으로 저지되었다. 그 후 대월의 편 왕조는 전쟁을 피하고자 몽골에 조공 사신을 보냈다. 이어 몽골은 **자와를 공격하는 등** 군사적 위세에 힘입어 해상 교역로(바닷길)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천호·백호제의 제편>



<몽골 제일주의>

몽골 제국은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제국 전역에 ★**역참(驛站)**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의 명령이 제국의 전 지역에 신속하게 전달되었고, 지역의 사정이 중앙으로 보고되었다. 역참 제도는 군사적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몽골 제국이 안정되면서 교역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몽골 제국의 등장으로 초원길이나 비단길에 동서 교역을 독점하거나 방해하던 국가나 세력이 사라져 동서 교역이 안정되었다. 바닷길을 장악한 원은 ★**항저우, 취안저우 등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동아시아 각지로 향하는 무역선을 관리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일본, 대월, 동남아시아를 잇는 동아시아 교역망이 형성**되었다. 동아시아 교역망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 만에 이르는 인도양 교역망과 연결되고, 다시 지중해 교역망으로 연결되었다. 교역이 발달하자 단일 화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몽골 제국은 초기부터 ★**교초(交鈔)를 발행**하였다. 특히, 쿠빌라이 칸 때 발행한 교초는 금이나 은과 교환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화폐였으므로, **몽골 제국 전역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동서 교역의 영향으로 문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서아시아의 천문학, 역법, 수학, 지도학 등이 원에 소개되었고, 그 영향으로 수시력(授時曆, 1281)이 만들어졌다. 이슬람의 과학은 원을 거쳐 고려에 전해졌고, 조선에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와 『칠정산』(1442) 등을 제작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마르코 폴로(1254 ~ 1324)와 이븐 바투타(1304 ~ 1368)** 등이 입국해 활동하기도 하였다.



<몽골 제국의 주요 교통로>



<페이지(페이저)>

▶ 14세기 이후 국제 관계의 변화

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적인 재정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원의 약화 → 백련교도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반란 • 명(明) 건국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원장이 각지의 반란 세력을 통합하고 대도 점령 → 난징에 도읍하여 건국(1368) ↳ 흥무제(㉠, 재위 1368 ~ 1398) → 황제 권력 강화, 한족 문화 회복, 향촌 질서 정비 ✓ 영락제(㉡, 재위 1402 ~ 1424) : 자금성 건설과 베이징 천도(1421), 몽골 공격, 베트남 북부 점령 : 평화의 항해 추진(1405 ~ 1433) → 조공·책봉 체제의 확대, 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 질서 수립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민왕(㉢, 재위 1351 ~ 1374)의 반원 자주화 정책 ✓ 몽골의 풍습 금지, 기철 등 친원 세력 축출, 쌍성총관부 무력 탈환(1356) ✓ 권문세족의 반발과 왜구의 침입 등으로 실패 → 신진사대부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 정도전 등 혁명과 신진사대부와 왜구 토벌 과정에서 세력을 키운 이성계 등의 신흥 무인 세력의 연합으로 건국(1392) ✓ 초기 요동 정벌 추진(1396)으로 명과 갈등 → 1401년 태종(㉣, 재위 1400 ~ 1418) 때 명과 조공·책봉 관계 형성
일본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다이코 일왕 슌 아시카가 다카우지 → 가마쿠라 막부 붕괴 → 무로마치 막부 성립(1336) ② 고곤 일왕(교토) 對 고다이코 일왕(요시노) → 남북조의 대립 시작(1336) ③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재위 1368 ~ 1394) ↳ 남북조 시대 통일(1392), 일본 열도에 대한 지배권 확립 → <u>일본 국왕 책봉(1401) → 명과 감합 무역 시작(1404)</u>
북부 베트남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 왕조(1400 ~ 1407) → 후 레 왕조(1428 ~ 1788)

명과 조선이 건국되고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됨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명은 각지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요구하였고, 조선, 일본, 대월, 류큐 등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조공·책봉 관계가 성립되었다. 명은 조공 이외의 민간 교역을 철저히 통제하였으므로, 몽골 제국 시기보다 동서 교류와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교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사대교린을 추구한 조선은 조공·책봉 관계를 통해 명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일본, 여진, 류큐(1429 ~ 1879) 등과 교류하였다. 일본은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공 질서에 참여하였다. 명의 침공을 물리친 대월에서는 레 왕조(1428 ~ 1788)가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명의 문물을 도입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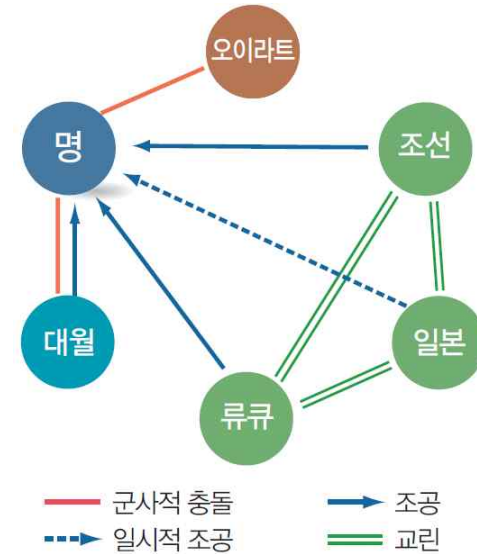
Check!

명(明)의 조공 질서 확립



<정화의 항해로, 명(明) 중심의 조공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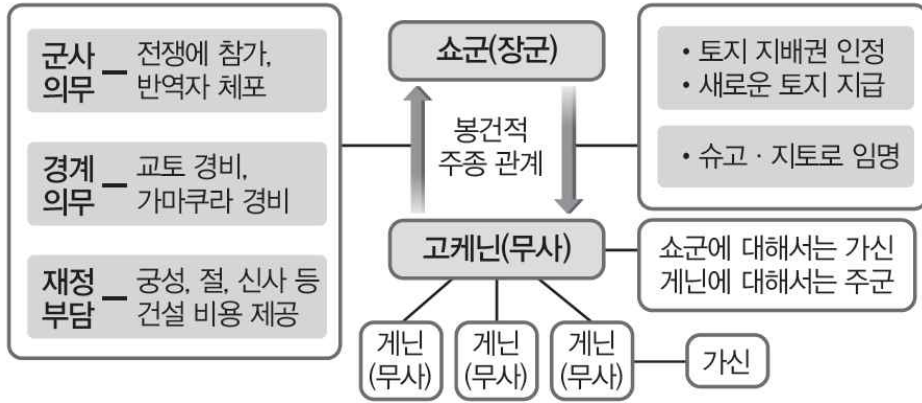
정화(1371 ~ 1433)는 영락제의 명에 따라 1405년 첫 항해에 나선 뒤 1433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항해에 나섰다. 그의 함대는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동해안의 말린디(Malindi)까지 항해하였고, 여러 나라를 조공·책봉 체제로 끌어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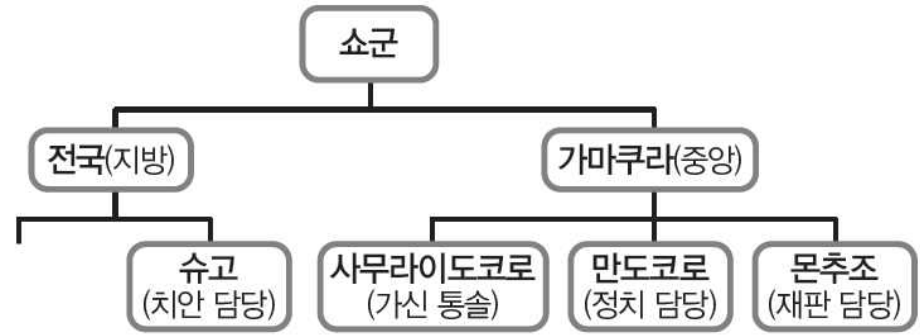
▣ 명과 조선의 사대(事大) 관계(『금성 교과서』, p.81)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행차하여 잔치를 베풀고 명나라 사신(진가유)을 맞이하였다. 임금이 명나라 사신에게 말하기를 “후문의 야인은 대대로 변방의 걱정이 되었으므로 조종으로부터 칙지를 받들어 위로하고 무마하여 변방의 백성을 편안케 했던 것뿐이고, 우리가 불러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한참 동안 서서 이야기하다가 임금이 돌아오려고 하니, 명나라 사신이 전송해서 중문까지 이르렀다. 임금이 또 지극한 정성으로 사대하겠다는 뜻을 이야기 하니, 진가유가 말하기를, “정성이란 것은 대국도 섬길 수가 있고, 소국도 섬길 수가 있으며, 이웃 나라와 교제할 수도 있으니, 전하의 말이 정말 옳습니다.”라고 하였다.

- 『세조실록』



<쇼군과 고케닌의 관계>



<가마쿠라 막부의 통치 구조>



일본 역사의 흐름	
592~709	아스카 시대
710~793	나라 시대
794~1185	헤이안 시대
1192~1333	가마쿠라 막부 시대
1336~1392	남북조 시대
1338~1573	무로마치 막부 시대
1467~1477	오닌의 난
1467~1590	센고쿠 시대
1603~1867	에도 막부 시대



<여·원 연합군의 일본 원정>

신석기	청동기	반랑국	어우락 왕국	남월국	40 ~ 43	응오 왕조	리 왕조	쩐 왕조
풍응우옌 문화	동썌 문화	흥 브엉 건국 동썌 문화 기반	안 즈엉브엉 남월국에 멸망	기원전 203 ↳ 짜에우다 건국 기원전 111년 멸망 ↳ 한9군 설치	쯩 자매의 봉기 후한 광무제의 진압	939년 성립 ↳ 5대 10국의 분열로 독립	1009 ~ 1225 과거제 실시 국호 '대월'	대몽 항쟁 승리 쯩놈 문자 『대월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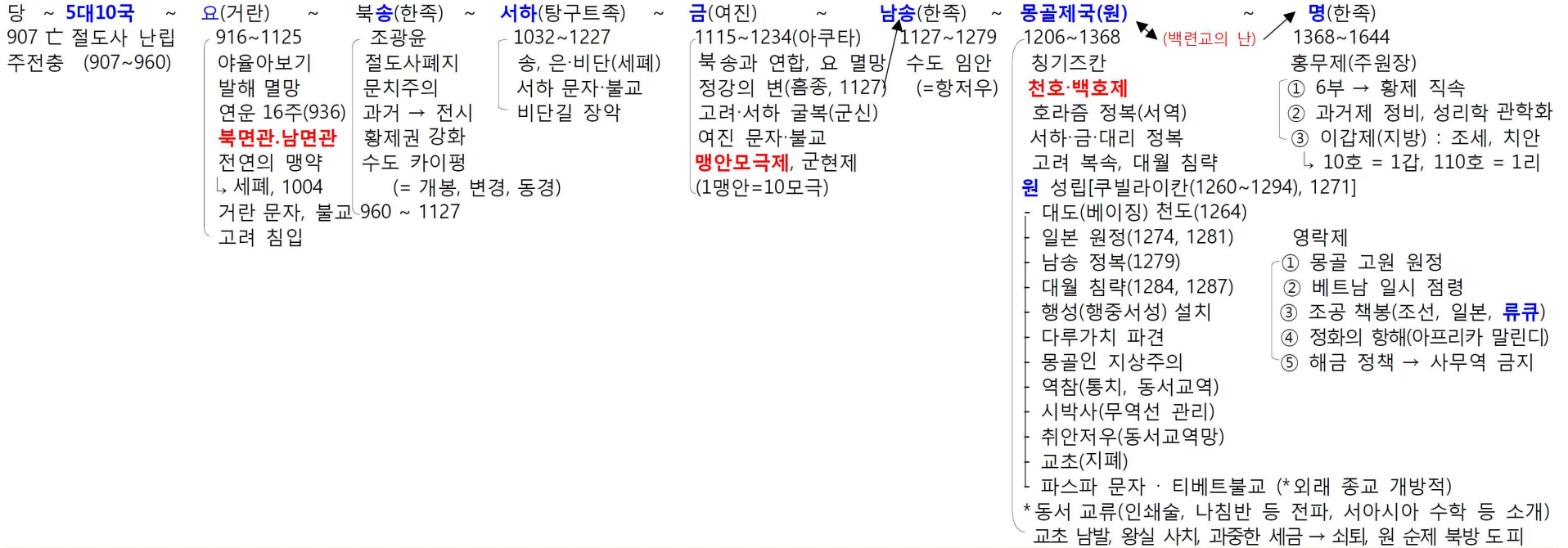
응오 왕조(939 ~ 944) → 딘 왕조(968 ~ 980) → 전 레 왕조(980 ~ 1009) → 리 왕조 성립(1009 ~ 1225) → 문묘 건설(1070) → 과거제 도입(1075) → 국자감 설치(1076) → 쩐 왕조 성립(1225) → 몽골의 제1차 침입(1257) → 『대월사기』 편찬(1272) → 몽골의 제2차 침입(1284) → 몽골의 제3차 침입(바익당강 전투, 1287) → 쩐 왕조 멸망(1400) → 호 왕조 수립(1400) → 호 왕조의 멸망과 명의 지배(1407 ~ 1427) → 후 레 왕조 성립(1428 ~ 1788)

쩐흥다오(1228 ~ 1300)는 쩐 왕조(1225 ~ 1400)의 장군으로, 3차례에 걸친 몽골군의 침략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몽골의 제1차 침입(1257) 때 대월의 북방을 굳게 지켰다. 몽골의 제2차 침입(1284) 때는 수도 탕롱(지금의 하노이)이 함락되고 황제(인종, 재위 1278 ~ 1293)까지 항복을 고려하자, 50만 대군에 맞서 최후까지 저항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격장사(檄將士)』라는 유명한 글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해 몽골군을 대파하고 탕롱을 탈환하였다. 몽골군의 3차 침입 때(1287)는 소수의 병력이었음에도 탁월한 전략으로 몽골군에 대승을 거두었다. 오늘날 베트남 사람들은 쩐흥다오를 흥다오 대왕으로 신격화하여 베트남의 독립을 지킨 영웅으로 존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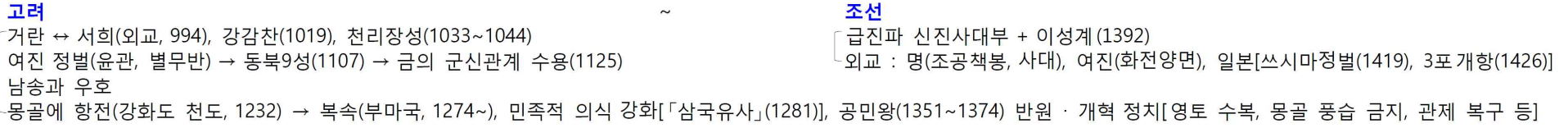


<쩐흥다오 동상(호찌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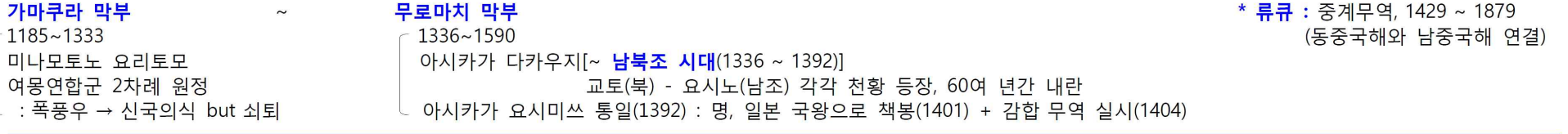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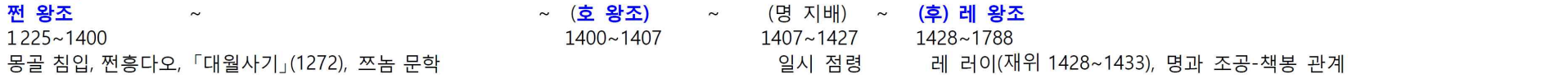
• 한반도



• 일본



• 베트남



개념 Check

- ① 5대 10국의 분열 시대는 조광윤이 세운 ()에 의해 수습되었다.
- ② 918년 한반도에서는 ()가 건국되었고,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 ③ 1004년 송(宋)은 ()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여 은과 비단을 바쳤다.
- ④ 거란은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하여 유목민과 농경민을 ()로 나누어 다스렸다.
- ⑤ 1032년 중국의 서쪽 지역에서 탕구트 족이 ()를 건국하였다.
- ⑥ 1115년 아쿠타(阿骨打)는 여진을 통일하고 ()을 건국하였다.
- ⑦ 거란, 탕구트, 여진 등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 ⑧ 송은 건국 이후 ()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황제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 ⑨ ()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 국력이 쇠퇴한 북송은 금에 의해 멸망하였다.
- ⑩ 1126년 금의 공격으로 북송의 수도 ()이 함락되었으며, 이후 남송이 수립되었다.
- ⑪ 송·원 대에 취안저우 등지에 ()가 설치되어 해상 교역을 관장하였다.
- ⑫ 고려는 ()를 멸망시킨 요에 대해 적대 정책을 펼쳐 요의 침입을 받았다.
- ⑬ 요의 제1차 침입 때 고려의 서회는 외교 담판으로 ()를 확보하였다.
- ⑭ 고려는 윤관의 건의로 ()을 편성하여 여진을 정벌하였다.
- ⑮ 베트남 지역에서는 939년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 왕조가 수립되었다.
- ⑯ 1206년 테무친은 쿠릴타이에서 ()으로 추대되었다.
- ⑰ 고려에서는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여 ()가 끝까지 항전하였다.
- ⑱ 원은 지방에 ()를 파견하여 다스렸고, 고려에도 이들을 파견하여 내정에 간섭하였다.
- ⑲ 칸으로 즉위한 쿠빌라이는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로 옮겼고, 국호를 원으로 바꾸었다.
- ⑳ 몽골은 주요 간선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을 설치하였다.
- ㉑ 일본에서는 몽골·고려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낸 후 자국이 신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 확산되었다.
- ㉒ 1192년 ()가 일왕에게 쇼군(정이다장군)의 칭호를 받았다.
- ㉓ 가마쿠라 막부는 지방에 토지 관리와 조세 징수를 위해 ()를 파견하였다.
- ㉔ 무로마치 막부가 새로운 일왕을 세우자 기존 일왕이 피신하여 세력을 유지하면서 ()의 내란이 발생하였다.
- ㉕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는 명 황제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 받았고 명과 () 무역을 전개하였다.

▶ 밑줄 친 '나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서쪽의 그 나라가 걸어온 역사를 개관해 보면 비록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았고, 송도 또한 세페라 칭하면서 서 하사해 주고 서조(誓詔)로 답해 주었지만, 모두 일시적으로 나온 말일 뿐이며, 그 마음은 신하로 순종하려는 진실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원호가 머리를 묶고 군사를 일으킨 지 거의 20년 동안 송은 그의 강함을 꺾을 수 없었다. - "송사" -

<보기>

- ㉠ 맹안·모극제와 주현제를 실시하였다.
- ㉡ 호라즘을 정복하여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 ㉢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 족에 의해 세워졌다.
- ㉣ 비단길을 통해 동서 중계 무역을 전개하였다.

- ① ㉠, ㉡
- ④ ㉡, ㉣

- ② ㉠, ㉢
- ⑤ ㉢, ㉣

- ③ ㉡, ㉣

▶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변천

기원전 2 ~ 3세기	3 ~ 6세기	7 ~ 9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고조 : (____)와(과)의 전쟁 패배 ↳ 화번공주와 물자를 주고 화친• 한 무제의 정복 정책 : 흉노 정벌, 남월과 고조선 멸망• 조공·책봉 외교 : 유교적 통치 이념과 (____)에 바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조와 남조 : 주변국과 조공·책봉 관계 체결 : 서로의 사절을 조공 사절로 취급• 주변국 : 실리를 고려하여 책봉국 선택 : 여러 나라와 동시에 조공·책봉 관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618 ~ 907) : 유목 국가에 (____)공주 파견 : 주변국과 조공·책봉 관계• 돌궐, 위구르, 토번 : 당과 (____) 관계만 맺으려 함• 신라·발해 : 상호 교류, 당과 조공·책봉• 일본 : 견당사(630 ~ 894) 파견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수능 특강』, p.47)

(가) 몽골군이 배에서 내려 말을 타고 깃발을 높이 들고 쳐들어왔다. …… 일본군이 전열을 가다듬어 쳐들어가면, 그 가운데를 뒤로 물리고 양쪽 끝에서 포위해 남김없이 도륙하였다.

(나) 일본의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황제 폐하께 국서를 올립니다. …… 예로부터 전해오는 법규에 따라 상인 고이즈미를 승려 소아와 함께 동행하게 하고 친교를 맺고자 토산물을 헌상합니다.

- ① 주원장이 명을 건국하였다.
- ② 고려가 몽골과 강화를 맺었다.
- ③ 변경(카이펑)이 함락되어 북송이 멸망하였다.
- ④ 일본이 견당사를 파견해 선진 문물을 수용하였다.
- 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정이대장군의 직함을 받았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수능 특강 변형』, p.51)

• 황제가 말하기를 “조선은 수도로부터 압록강에 이르기까지의 요충지에 비축하는 군량이 역마다 1, 2만 석 또는 7, 8만 석, 10여 만 석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라오둥은 군량이 모자라 군사들이 굶주리고 있다. 만일 조선이 20만 군을 내어 쳐들어오면 우리 군대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 정도전이 남은과 깊이 결탁하여 상서하기를, “사졸(士卒)이 이미 훈련되었고 군량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동명왕의 옛 강토를 회복할 만합니다.” 라고 하였다.

- ① 지배층이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 ② 5대 10국의 혼란 시대가 수습되었다.
- ③ 유목 민족이 처음으로 중국 전역을 지배하였다.
- ④ 몽골 세력을 몰아내고 한족 문화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 ⑤ 무로마치 막부가 송의 동전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유통시켰다.

▶ 정의

의미	•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일률적 통치 기준, 국가 통치 조직·관리 복무 사항·백성의 조세와 노역 등을 규정	
구분	율(律)	• 범죄 행위와 처벌을 규정하는 형벌 위주 법률(형법)
	령(令)	• 국가의 조직과 운용, 신분과 수취 제도 등을 폭넓게 규정한 행정 위주의 법률(행정법)

▶역할 : 넓은 지역에 걸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된 통치 기준

▶성립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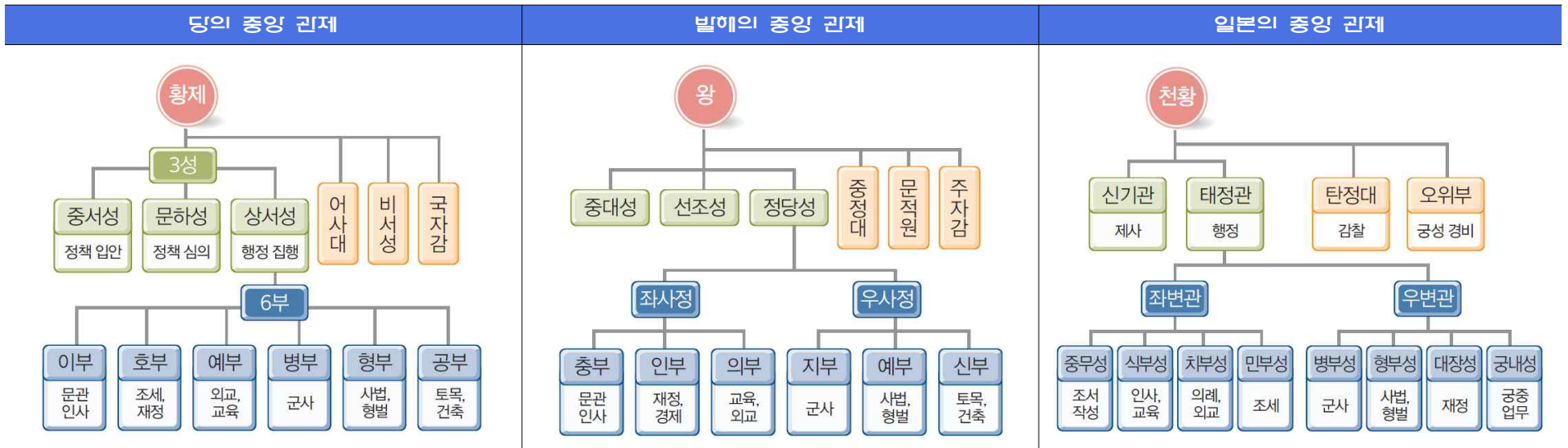
춘추 전국 시대	• 율이 성문화(형법 중심의 법전), 상앙(? ~ 기원전 338) 등 법가 사상 활약	
진(秦)	• 이사(? ~ 기원전 208) 중용 → 법치에 입각한 엄격한 상벌통치	
한(漢)	• 무제(㉞, 재위 기원전 141 ~ 기원전 87), 동중서의 건의 →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기원전 136), 오경박사와 태학 설립	
	• 국가를 정교한 법으로 통제하려는 생각과 가족 및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는 유교적 사고가 함께 율령에 반영 ✓ 가부장적 질서와 신분 질서, 연장자에 대한 우대 등을 위반하는 범죄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내용이 율령에 포함	
위(魏)	• 관리 등용 방식으로 9품(品) 중정제 실시 → 문벌 귀족 사회의 형성	
진(晉)	• 율령에서 처음으로 율(형법)과 령(행정법)을 분리	
남북조(南北朝) 시대	• 북위(386 ~ 534) - 균전제(485), 삼장제(三長制, 인장·이장·당장, 486), 조용조를 실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율령 제정	
수(隋)·당(唐)	특징	• 율령에 격(格, 율령 추가·보완)과 식(式, 구체적 시행 세칙) 추가
	중앙	• 3성(중서성·문하성·상서성, 황제의 통치 보좌) 6부(상서성 산하, 행정 업무 담당)
	지방	• 주·현 설치, 토지 분배와 과세·징병 등을 위해 호적 작성(3년 주기)
	관리 선발	•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제 시행(587)
		✓ 귀족 세력의 견제와 황제권의 강화
	교육 기관	• 국자감(중앙, 오경 등 유교 경전 교육), 문묘(공자 배향)
	경제	• 균전제의 토지 제도, 조·용·조의 수취 체제
군사	• 부병제 → 농민의 병역 의무를 바탕으로 한 국가 상비군 제도	

▶인(韓)

삼국 시대	고구려	• 대학 설립(372), 율령 반포(373)
	백제	• 율령 반포(260), 관인수재죄(262), 오경박사, 의박사·역박사
	신라	• 율령 반포(520), 골품제
남북국 시대	통일 신라	• 집사부 이하 13관부, 9주 5소경, 국학(682), 독서삼품과(788), 관료전(687), 정전(722), 민정문서
	발해	• 3성(정당성·선조성·중대성) 6부(충·인·의·지·예·신·부), 5경 15부 62주, 주자감

▶일(日)

다이카 개신	645	• 소가 씨 제거 →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 강화, 당(唐)의 율령 체제 수용 시도	
다이호 율령	701	중앙	• 2관(태정관·신기관) 8성(좌변관·우변관)
		지방	• 국(國, 중앙에서 관인 파견) - 군(郡, 현지의 지방 호족을 종신직으로 임명) - 리(里)
		감찰	• 탄정대(彈正臺)
요로 율령	757	• 제정(712) → 『영의해(令義解)』(833)	



▶ 과거제의 발전

중국	수	• 과거제 시작(유교 경전 시험을 통해 관리 후보 선발, 587)
	당	• 과거제의 제도화, 이부 주관
	송	• 황제가 시험을 직접 주관하는 전시(殿試) 제도 정례화 • 사대부의 성장
한반도	고려	• 광종(㉔, 재위 949 ~ 975) 때 쌍기(후주 출신인 귀화인)의 건의로 실시(958)
	조선	• 문과, 무과, 잡과 실시 → 문반, 무반의 양반 관료 체제의 형성

▶ 과거제의 영향

: 새로운 학자 관료층 성장, 학문적 능력 중시, 유학 발전,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군주권의 강화

지문 확인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

① 당 대의 율령(『금성·비상 교과서, 수능 특강』, p.57·65·52)

- 당률은 이전 왕조에 비해 형벌을 간략화하였다. 태형과 장형의 매의 수를 줄이고, 참형을 삭감하여 유형 92조를 만들었으며, 유형을 삭감하여 도형 71조를 만들었다.
- 남편이 죽고 상복을 벗더라도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데, 여자의 조부모나 부모가 아니면서 억지로 혼인시킨 자는 도형(강제노동형) 1년에 처한다.
- 무릇 주인이 부곡을 구타하여 죽였다면 도형 1년에 처한다. 고의로 죽였다면 1등을 더한다. 그러나 (부곡이) 잘못을 범하여 처벌하다가 죽었거나 과실로 죽였다면 각각 논죄하지 않는다.
- 무릇 조부모나 부모에게 욕하였다면 교수형에 처한다. 구타하였다면 참수형에 처한다. …… 자손이 가르침이나 명령을 위반하여 조부모나 부모가 구타하여 죽였다면 도형 1년 반에 처한다. - 『당률소의』

② 송 대의 과거(『비상 교과서, 수능 특강』, p.70)

한림학사 이방은 사사로운 정을 개입시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였다고 제소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최종 시험장에서 불합격된 사람 360명의 이름을 명부에 기재한 뒤, 그들을 소견하고 195명을 선발하였다. …… 그리하여 전시가 통상의 제도로 되었다. - 송사, 『선거지』

• 중국

(하·상·주)~**춘추전국시대** ~~~~~ **진** ~~~~~(진승·오광의 붕기)~~~~~ **한**(전한 → 신 → 후한) ~ (위촉오) → **서진** ~~~~ **수** ~~~~~ **당**(618 ~ 907 : 절도사, 황소의 난)

- 부국강병
- 제자백가 (유가·도가·묵가·법가)
- 상앙
- 한비자
- 이사 & 진시황제 : 통일
 - 군현제, 관료제
 - 문자·도량형(행정, 조세)
 - 토목 : 도로, 만리장성
 - 순행 : 낭야대 각석
- 재통일 + 유교 천명사상
- 무제
 - 동중서, 유교 통치 이념 건의
 - 태학, 오경박사, 공자 사당
 - 법가 + 유가 ⇒ 천자
- 울(형벌)
- 령(행정)
- 남북조 통일
- 3성6부
- 주현제
- 과거제
- 호적제
- 대운하
- 울·령·격·식 체제 완성
- 당률(태·장·도·유·사) → 신분·유교 윤리
- 3성 6부 : 중서성·문하성·상서성(6부)
- 주현제
- 과거제, 9품 관리 등급
- 균전제 : 호적(3년), 평민 성인 남자
- 조세 : 조(토지)·용(부역)·조(호별 남자)
- 부병제
- 수도 장안성(국제적)
- 외래 종교 : 경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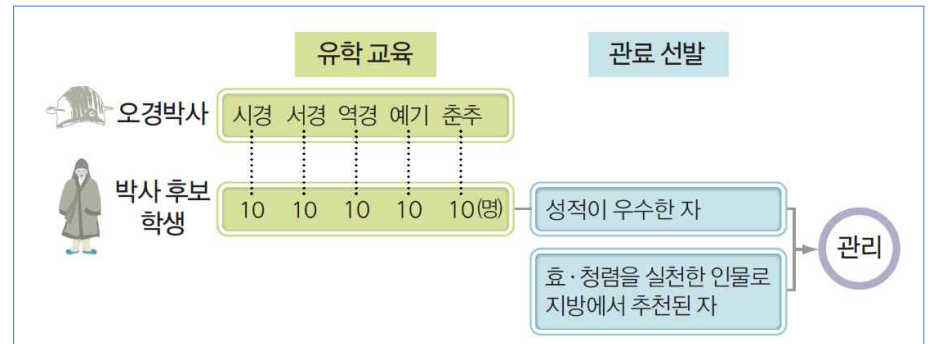
삼국 ~~~~~ **통일 신라** + **발해** ~~~~~ **고려**

- 고구려 : 소수림왕, 울령(373), 태학(372)
- 백제 : 고이왕, 울령(260), 오경박사
- 신라 : 법흥왕, 울령(520)
- 중앙 14부 행정, 사정부(감찰), 17관등(골품+관료제)
- 9주 5소경, 민정문서
- 국학(← 당 국자감 영향, 682)
- 독서삼품과(788)
- 한자, 이두 사용
- 중앙 3성 6부(당 영향, 독자적 운영 + 유교적 명칭)
- 지방 5경 15부 62주
 - 주자감(← 당 국자감 영향), 문적원(서적 관리)
 - 독자적 연호(인안, 대흥, 건흥)
 - 고구려 문화 계승(운돌, 모줄임 천장 구조)
- 2성 6부, 관리 9품
- 국자감, 어사대
- 과거제(광종, 958)
- 왕실 내 근친혼

• 일본

아스카 시대(문화) → **다이카 개신**(645) → **다이호 율령**(701) → **나라 시대**(710 ~ 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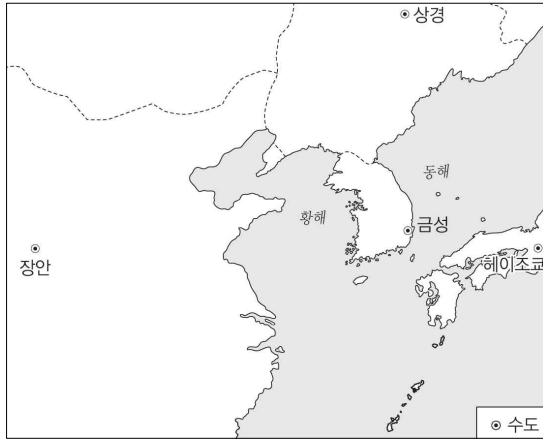
- 593 ~ 622
- 7C경 만요가나 (→가나, 헤이안시대)
- 국왕 중심 중앙 집권 체제
- 당(唐) 유학생 지원 : 소가씨 제거
- 정치 개혁 : 당(唐) 율령 체제 모방
- 중앙 2관 8성제(당 3성 6부 영향) : 신기관(제사) + 태정관(행정), 8개 부서
- 국(國, 고쿠) - 군(郡) - 리(里) : 지방 행정 단위, 군의 관리[호족 임명, 중앙 파견 No!]
- 하급 관료 선발 시험 존재(일본, 과거제 시행 No!)
- 근친혼 인정, 모계 중시, 친족제 영향



▶인(漢)의 유학 교육과 관료 선발 제도

- ① 진의 시황제는 이사 등 () 사상가를 중용하였다.
- ② 진(秦)은 가혹한 법가적 통치에 반발한 ()·()의 난 등의 영향으로 멸망하였다.
- ③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인 한의 ()는 태학을 설치하고 오경박사를 두었다.
- ④ 한 대에는 () 사상이 가장 중요한 통치 이념으로 부상하였다.
- ⑤ ()은 한 대에 법가적 원리인 법치와 강제성, 유가적 원리인 도덕과 자발성이 결합하여 성립되었다.
- ⑥ 남북조를 통일한 () 왕조는 3성 6부제, 과거제 등을 실시하였다.
- ⑦ 수는 () 건설과 고구려 침공에 따른 백성의 불만이 폭발하여 멸망하였다.
- ⑧ 율령 체제는 형법인 (), 행정법인 (), 추가·보완한 법령인 (), 시행 세칙인 ()으로 나누어진다.
- ⑨ 당의 수도 ()에서는 동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⑩ 당 대에 완성된 율령 체제 아래에서 형벌은 (),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었다.
- ⑪ 당은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를 실시하였다.
- ⑫ 신라는 삼국 통일 이후 당의 국가감을 본뜬 ()을 세우고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 ⑬ ()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의 3성을 운영하였다.
- ⑭ 당은 ()의 규정에 따라 중앙에 ()를 두고, 지방에 주·현을 두었다.
- ⑮ 당에서 균전제를 바탕으로 농민에게 부과하던 수취 제도는 ()이다.
- ⑯ 신라는 유교 경전 이해 능력을 시행하는 ()를 시행하여 관리 선발에 활용하였다.
- ⑰ 645년 일본에서는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화를 추구한 ()이 단행되었다.
- ⑱ 일본에서 율령 반포에 따라 설치된 기구인 ()은 제사를 담당하였다.
- ⑲ 일본은 당의 율령제를 수용하여 701년에 () 율령을 반포하였다.
- ⑳ ()는 당의 3성 6부제를 도입하였으나 정당성 아래 좌사정과 우사정을 두고 각각 3부씩 나누어 관리하는 등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 ㉑ 통일 신라는 9주 5소경 제도를 확립하고 조세 징수를 위한 ()를 작성하였다.
- ㉒ 발해는 서적 관리 및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을 설치하고, 중앙 국립 교육기관으로 ()을 설립하였다.
- ㉓ 고려는 958년에 ()를 실시하였고, 중앙 정치 체제로 당의 3성 6부제를 수용하였으나 3성 대신 ()으로 운영하였다.

▶ 지도의 형세가 나타낸 시기에 볼 수 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사를 준비하는 신기관의 관리
- ② 동중서에게 명령을 내리는 황제
- ③ 백강 전투에 참전하는 왜의 군인
- ④ 적산 법화원에서 불공을 드리는 승려
- ⑤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고구려의 귀족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서문>

이 책은 다이호 율령이 반포된 지 17년 후에 다시 반포된 요로(養老) 율령과 그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다이호 율령이 현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율의 일부와 거의 모든 영이 남아 있는 요로 율령은 ㉠당시의 통치 체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 ① 선우 아래에 여러 명의 왕을 두었다.
- ② 태정관이 설치되어 행정을 담당하였다.
- ③ 서적 등을 관리하는 문적원을 마련하였다.
- ④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⑤ 중정관이 지방의 인재를 9등급으로 나누어 추천하였다.

▶ 불교의 성립

기원전 6세기	• 인도에서 창시, 해탈을 목표로 명상과 교리 연구에 전념			
기원전 5세기	부파 불교	• 석가모니 사후 교리상의 문제로 여러 부파로 분열		
		• 상좌부 불교(출가자 중심, 소승 불교)가 가장 발달		
기원전 1세기	대승 불교	성격	• 재가자 중심, 이타행(利他行) 강조 • 부처(석가모니) 신격화, 부처의 자비에 의한 중생구제 강조, 보살(菩提薩埵) 개념 사용	
		구분	교종	• 교리 연구, 부분적 지식의 축적 강조
			선종	• 달마 창시, 참선 중시
기원후 6세기	밀교	• 대승 불교의 한 갈래로 등장, 힌두교의 주술적 요소 수용, 인간의 세속적 요구 존중, 만다라와 다라니 • 티베트, 신라, 일본 등에 전파		

▶ 불교의 전파

중국	후한	• 중앙아시아를 통해 대승 불교 수용(67년)	
	5호 16국	• 유목 민족 국가들의 후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화북 지역에 확산 •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승려들에 의해 불경이 한문으로 번역	
	남북조 시대	• 황제의 권위와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사찰과 거대한 불상 건립 ✓ 원강 석굴 사원(460), 룡먼 석굴 사원(493 ~)	
한반도	삼국	고구려	• 전진, 순도, 372년(소수림왕 2)
		백제	• 동진, 마라난타, 384년(침류왕 1)
		신라	• 고구려, 목호자, 457년(눌지 마립간 41) → 이차돈의 순교와 불교 공인, 527년(법흥왕 14)
일본 열도	• 백제, 노리사치계, 552년(성왕 30) • 토착 신앙과 갈등 → 일부 호족들의 보호 속에 보급되기 시작		

Check!

동아시아의 불교 전파



▶종국

남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현(337 ~ 422), 서역·인도 등지를 여행하고 『불국기(佛國記)』 저술(416년) • 달마(? ~ 528), 선종 창시
당(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602 ~ 664)의 인도 기행(629 ~),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 대안탑(大雁塔) 조성(645년),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저술(646년) • 감진(688 ~ 763), 8세기 후반 일본행 → 도다이지(東大寺)에서 계율 전수 • 각 나라에서 불교 유학 → 의상(625 ~ 702), 다이탕당(= 대승당), <u>혜초(704 ~ 787)</u>, <u>엔닌(794 ~ 864)</u> 등
송(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토종 유행, 선종(禪宗) 발달 → 성리학 성립에 영향
원(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마교 → 국교화

▶인반도

통일 신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효(617 ~ 686), 의상(625 ~ 702) 등의 활약으로 불교의 대중화 • 호족의 지원으로 선종(禪宗)의 유행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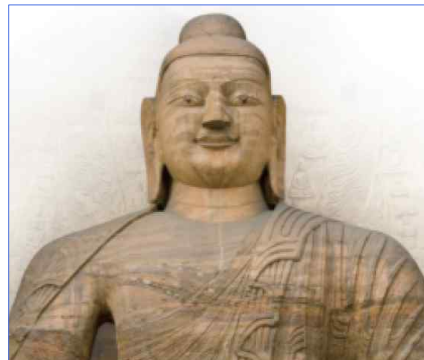
▶일본

아스카 시대 (593 ~ 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 수용을 둘러싼 내전(신토 對 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파의 승리 → <u>신불습합(神佛習合)</u> 표방 • 쇼토쿠 태자(574 ~ 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호류 지(法隆寺, 법릉사, 607) 등 왕실과 유력 가문의 후원을 받은 사찰 건립 • 전방후원분(4 ~ 6C) 쇠퇴
나라 시대 (710 ~ 7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쿠분 지(國分寺, 천황의 사찰)의 전국 설립 • 쇼무 천황(聖武天皇, 재위 724 ~ 749), 도다이지(東大寺) 노사나불(盧舍那佛) 건립의 조(詔, 743년), 도다이지 창건(745년) • 당(唐) 승려 감진(688 ~ 763)의 활약
헤이안 시대 (794 ~ 1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닌(794 ~ 864), 장보고의 도움으로 당(唐) 입국, 법화원(法華院)에서 기숙(寄宿) →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저술 • 주술과 기도를 중시하는 밀교(密敎) 확산, 무사들에 의해 선종(禪宗) 확산
가마쿠라 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불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고 믿는 대중적인 불교 등장과 무사 사회에서 선종의 유행

▶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국가 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실은 군주가 곧 부처라는 논리로 왕권을 강화하고 사회를 안정시킴 화려한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건립하여 군주의 권위와 신앙심 표출 ✓ 중국 북조의 대형 석굴 사원, 일본 나라 시대의 고쿠분사(國分寺), 신라의 백고좌 강회(『인왕경』 강론), 고려 시대의 대장경 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음보살, 약사여래, 아미타불 → 경배의 대상 		
구원 신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설(業說), 신분의 차이에 따른 차별과 고통을 합리화 		
불교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전탐(中), 석탐(韓), 목탐(日)], 불상, 목판인쇄술[『무구정광대다라니경』(신라), 『백만탐다라니경』(일본), 『팔만대장경』(고려)] 		
토착화	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교와 결합, 『부모은중경』[당(唐)], 유교적 장례 의식과 결합, 무덤 간소화 	
	韓	신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상을 도운 용 → 용신 신앙(龍神信仰)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천이나 용을 섬기는 토속 신앙과 불교를 결합한 팔관회가 국가 행사로 개최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찰 내에 산신각(山神閣), 칠성각(七星閣) 건립 	
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토(神道)와 결합, 신토의 토착 신이 불교 수호(하치만 신상) 		
구빈 활동	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진장(無盡藏, 사원에 설치된 금융기관, 남북조 시대 이후) 	
	韓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생고(長生庫), 제위보(濟危寶) 	
	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묘 왕비의 비전원(悲田院, 고아·병자 수용)·시약원(施藥院, 병자 치료) 설치, 730년 	

-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불경을 거듭 펴라. 그 공덕으로 부모가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받으며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느니라.
⇒ 『_____』
- _____이(가) 일찍이 여러 촌을 다니며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였다. 이에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까지도 부처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고 모두 나무아미타불을 외게 되었으니 원효의 법화가 컸던 것이다.
⇒ 불교의 _____



<원강 석굴 대불>



<석굴암 본존불>



<하치만 신상>

강승회	? ~ 280	소그디아나	• 불경 번역(베트남), 남중국 오(吳)에서 활동(손권의 불교 귀의)
[]	337 ~ 422	남조 동진	• 인도 순례, 『불국기(佛國記)』 저술(416)
[]	? ~ 528	남조 양	• 인도 승려, 선종 창시
혜자	? ~ 622	고구려	• 쇼토쿠 태자(574 ~ 622)의 스승
담징	579 ~ 631		• 불교 교리, 붓·먹·제지술(日 전파), 호류 지(法隆寺) 금당 벽화
[]	602 ~ 664	당	• 인도 순례(육로, 629 ~), 『대당서역기』 저술(646), 대안탑 조성, 『서유기』의 주인공
[]	635 ~ 713		• 현장의 제자, 다이탕당(大乘燈)과 함께 인도 순례(해로, 671 ~), 『남해기귀내법전』 저술
다이탕당	7 ~ 8C	베트남	• 당(唐) 유학, 현장의 제자
원효	617 ~ 686	통일 신라	• 불교 대중화(아미타 신앙), 『판비량론』 등 현장 교리 정리 → 당(唐), 일(日) 불교계에 영향
[]	625 ~ 702		• 당(唐) 유학, 부석사 건립, 화엄종 개창(『화엄일승법계도』), 불교 대중화(아미타 신앙 + 관음 신앙)
[]	704 ~ 787		• 인도 도착(723), 『왕오천축국전』 저술(727), 인도 승려 금강지로부터 밀교(密敎) 학습
도의선사	8 ~ 9세기		• 당(唐) 유학, 남선(南禪) 수용(821), 9산 선문 융성
[]	688 ~ 763	당	• 8세기 후반 일본행, 실명(失明) • 日本(나라 시대) 정착, 고쿠분 지의 총본사인 도다이 지(東大寺)에서 계율 전수, 불상·불경·약품 등 전래
[]	794 ~ 864	일본	• 당(唐) 유학, 장보고의 적산 법화원(法華院) 기숙, 『입당구법순례행기』 저술(838 ~ 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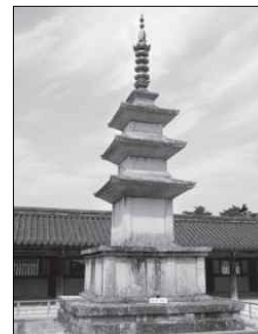
대인탑(645)



미륵사지 석탑(7세기)



호류 지 5층 목탑(7세기)



석기탑(751)



도다이 지(745)



① 불교의 전파와 수용(『금성 교과서, 수능 특강』, p.61 · 61)

- 법흥왕 또한 불교를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 (신하들이) 불평을 많이 하였으므로 왕이 근심하였다. (왕의) 가까운 신하인 이차돈이 아뢰기를, “제 목을 베어 여러 사람의 논의를 진정시키십시오.”라고 하였다. …… 목을 베자 …… 피가 솟구쳤는데 그 색이 우윳빛처럼 희었다. 여러 사람이 괴이하게 여겨 다시는 불교를 헐뜯지 않았다. - 『삼국사기』, 신라 본기
- 백제 성왕 때, 태자상(석가모니상) …… 등을 보내고 …… 천황이 받고는 여러 신하에게 물었다. “…… 써야 하겠는가, 쓰지 않아야 하겠는가? ……” 라고 말했다. 신하들은 “우리 국신(國神)의 마음을 거스름까 두렵습니다. …… 다른 나라 신(부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였는데 다만 소아대신 도목숙네(蘇我大臣稻目宿禰, 소가 씨) 홀로 “다른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 이에 그곳(모구원 후궁)에 두고 모시기 시작하였다. - 『원흥사연기』

② 신라 백고좌 강회(『천재 · 비상 교과서』, p.71 · 72)

3월에 (선덕)왕이 병이 들었는데 의술과 기도로 효과가 없었으므로 황룡사에서 백고좌(百高座) 강회를 열어, 승려를 모아 『인왕경』을 강론하게 하고, 1백 명에게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 『삼국사기』, 신라 본기

③ 고려 태조의 훈요 10조(『비상 교과서』, p.72)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 사원들을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각 자기 직책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이다.

④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천재 · 금성 교과서』, p.74 · 67)

- 귀하를 직접 뵈 적은 없으나 높은 이름을 오래전에 들었기에 흠모하는 마음 더욱 깊어만 갑니다. ……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세우신 이곳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에 말로 다할 수 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 적산으로 돌아와서 청해진에서 (방향을) 바꾸어 본국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엿드려 바라옵건대 장대사(장보고)를 뵈고 자세히 사정을 아뢰어 주십시오. …… 만일 그곳(청해진)으로 사람과 배가 왕래한다면 청하옵건대 명령을 내려 특별히 찾아봐 주십시오. 승들의 귀향은 오로지 (압아의) 크나큰 도움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

- BC. 6세기 창시 ↔ 브라만교
- 석가모니 = 부처(붓다)
붓다 = 진리 깨달은 이
- 인과응보·윤회전생·해탈·자비·평등
- 승가공동체 : 출가자 중심
- 부파 불교
 - ① 상좌부 : 계율(보수적)
 - ② 대중부
- 대승 불교 : BC. 1세기
 - ① 재가자(일반 신도) 중심
 - ② 석가모니 신격화
 - ③ 자비 → 중생 구제
 - ④ 보살 개념(ex. 관세음보살)
 - ⑤ 반야경, 화엄경
 - ⑥ 정토 신앙(민중적) : 극락 ←
 - ⑦ 동북아시아 전파
 - ⑧ 7세기 밀교 : 주술, 만다라
티베트, 日 전파
- 스투파 : 탑
↳ 부처 무덤(석가모니 사리)

중원

- AD. 67년, 중국 전래
- 위·진·남북조 시대 : 확산
: 삼국(위·촉·오) - 불경 번역, 토착신앙과 융합
: 5호 16국 - 적극 수용
- 민족적 편견 無
↳ 후조(갈족 - 석륵) : 이민족 출신
- * 전진 : 둔황 석굴사원(366)
- 북조 : 북위(선비족) : 원강 · 룡먼 석굴사원
↳ 군주 = 부처, 460
- 동진 : 법현, 「불국기」(인도 순례, 416)
- 양 무제(황제 보살), 백제와 교류
- 남북조
 - 선종 : 달마, 직관 + 참선 강조
 - 무진장 : 기부금, 서민 대출
 - * 남북조 시대는 도교도 성행(주술)
- 당(唐)
 - ① 「부모은중경」 : 효 강조, 유교 융합
 - ② 현장, 「대당서역기」(인도 순례, 646)
 - ③ 대안탑 : 현장, 불경 보관, 벽돌탑(전탑), 645
 - ④ 감진(688 ~ 763) : 日 → 계율, 불상, 불경, 약품
 - ⑤ 정토정, 법상종, 화엄종, 진언종 등

한반도

- 고구려 : 소수림 왕 수용, 전진(中), 372
혜자(쇼토쿠 태자 스승, 7세기)
담징(일본, 교리 전수, 7세기)
- 백제
 - ① 침류왕 수용, 동진(中), 384
 - ② 남조에서 경전 수입 → 일본 전파
 - ③ 익산 미륵사지 석탑
- 신라
 - ① 눌지마립간 수용, 고구려, 457
 - ② 법흥왕, 이차돈 순교와 공인, 527
 - ③ 거칠부 → 고구려 승려 혜량의 제자
- 통일 신라
 - ① 원효 : 정토신앙 보급(나무아미타불)
: 『판비량론』 → 당(唐), 日(日)에 영향
 - ② 의상(625 ~ 702) : 당(唐) 유학, 화엄종 개창
 - ③ 혜초(704 ~ 787) : 당(唐) 유학, 밀교 학습
: 『왕오천축국전』(727)
 - ④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 751)
 - ⑤ 도의 : 선종 도입(821), 호족 + 9산 선문
- 고려
 - 교종 + 선종 : 의천(천태종), 지눌(조계종)
 - 제위보, 해민국 : 빈민 구제, 자비 실천
- 토착화 : 용신 신앙, 팔관회

일본

- 백제의 불교 전파, 노리사치계, 552
초기 수용을 둘러싼 대립
내전과 신불습합(하치만 신앙)
- 아스카 문화[쇼토쿠 태자(574 ~ 622)]
 - 백제 영향, 왕실·유력 가문 후원
 - 호류 지 5층 목탑, 백제 관음상
- 나라 시대(710 ~ 794)
 - ① 고쿠분 지(구니 사찰 : 쇼무 천황)
 - ② 도다이 지 대불 : 호국 불교, 752년
 - ③ 도다이 지 낙성식(745)
: 唐(도선), 印(보리선나), 참파(불철)
 - ④ 빈민 구제
비전원(고아, 병자 수용)
시약원(병자 치료)
- 헤이안 시대(794 ~ 1185)
 - 주술·기도 중시의 밀교 발달
 - 엔닌, 당 유학(장보고, 청해진, 838~)
- 가마쿠라 막부 시대(1185 ~ 1333)
 - : 염불만으로도 구원
 - : 정토 신앙, 대중적

▶ 불교의 확산과 인지와 인문에 대한 이해 심화

불경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 승려들은 한문으로 된 불경을 읽고 한자를 써서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 이후 신라에서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두가 만들어졌고, 일본에서도 한자를 변형하여 일본어를 표기하는 가나가 만들어졌다.

개념 Check

- ① ()의 교리에는 인과응보, 윤회전생, 수행을 통한 해탈,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② 기원전 1세기경 재가자를 중심으로 이타행을 강조하는 새로운 불교 운동으로 () 불교가 출현하였다.
- ③ 불교는 기원 전후 ()을 따라 북중국에 전해졌다.
- ④ 신라에서는 법흥왕 때인 527년 ()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 ⑤ ()는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여 불교가 일반 민중에까지 확산되는 데 기여하였다.
- ⑥ 일본 나라 시대에는 도다이 지(東大寺)를 비롯한 국가 사찰인 ()가 각지에 설립되었다.
- ⑦ 중국에서 불교가 유교와 결합하면서 유교의 덕목인 효를 강조하는 경전인 ()이 간행되었다.
- ⑧ 일본에서 불교는 고유의 종교인 신도와 결합하였는데, 이를 ()이라고 한다.
- ⑨ 신라 말 호족의 지원으로 직관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이 유행하였다.
- ⑩ 티베트 불교는 주술적인 성격이 강한 ()와 티베트 고유 신앙이 결합하여 발전하였다.
- ⑪ 고구려 승려 ()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 ⑫ 신라의 ()는 인도를 순례하고 기행문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 ⑬ 당(唐)의 승려 ()은 8세기 중엽 일본으로 건너가 계율을 전파하였다.
- ⑭ ()은 8세기 신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평가받고 있다.

▶ 밑줄 친 ‘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사는 석장을 손에 쥐고 인도로 출발하였다. …… 그곳에서 많은 경전을 모조리 음미하고, 모든 불적을 하나도 빠지 않고 조사하면서 각지를 돌아다니기 수년, 겨우 귀로에 올라 정관 19년 정월, 장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입수한 경론이 6백 57부, 법사는 황제의 명으로 이를 번역하였다.
- 법사는 절의 단문 남쪽에 대안탑을 세워 서역에서 가지고 온 경전과 불상을 안치할 계획을 세웠다. 경본이 분실될까 봐 걱정도 되고, 또 화재로 인한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탑의 기단 4면은 각각 140척인데, 서역의 제도를 모방하여 중국의 옛날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탑은 5층으로 되었고, 높이는 180척이나 되었다.

- ① 일본에 계율을 전파하였다.
- ②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 ③ 『입당구법순례행기』를 저술하였다.
- ④ 『대당서역기』라는 여행기를 남겼다.
- ⑤ 불법을 연구하고 돌아와 『불국기』를 썼다.

▶ 밑줄 친 '그' 가 활동한 시기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현이 『불국기』를 저술하였다.
- ② 원강 석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 ③ 혜자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 ④ 현장이 인도에서 불교 경전을 가져왔다.
- ⑤ 쇼무 일왕의 명으로 도다이사가 건립되었다.

▶ 다음 자료의 조서가 내려진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수능 특강』, p.68)

덴포 16년 쇼무 천황이 조서를 내렸다. “불교를 융성하게 하고 널리 중생을 구하고 싶은 염원을 담아 노사나불 금동상 1구를 만들하고자 한다. 온 나라의 구리를 모두 모아 불상을 주조하고 큰 산을 깎아 불당을 세우고 불법을 널리 세계에 펼쳐 집의 불법 수행 동지로 삼고 싶다.”

<보기>

- ㉠ 외적과 싸우는 고구려 군사
- ㉡ 도호부(都護府)로 파견되는 당의 관리
- ㉢ 소가 씨 가문 타도를 모의하는 관리
- ㉣ 정치를 논의하는 발해 정당성의 관리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Check!

도다이지 대불전과 대불



키 16.2m, 얼굴만 5m, 무게가 350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불상이다. 쇼무 천황의 조(詔, 743)를 바탕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752년에 완성·개안(開眼, 신앙의 대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음)되었다. 담담하지만 자비로운 표정으로 오른손은 손바닥을 보이고 왼손은 무릎에 살포시 올려놓은 모습이다. 당시 일본 정부의 엄청난 국책 사업이었던 불상 제작에는 한반도 도왜인(渡倭人)의 후손인 최고 장인들의 기술력이 응집됐다.

제자백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자[인(仁) 강조], 맹자[의(義) 강조, 성선설], 순자[예(禮) 강조, 성악설]
훈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로 없어진 경서의 복원·해석을 중시하는 해석적 유학, 5경(『시경』·『서경』·『역경』·『예기』·『춘추』) 중시 • 한(漢) 대 : 동중서의 제안으로 무제 때 관학의 지위(통치 이념 역할) • 당(唐) 대 : 공영달의 『오경정의』 완성(고종, 653) → 훈고학 집대성
성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족의 민족의식이 강화되는 남송 대 주희(1130 ~ 1200)의 완성 •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 논리 체계 수용(이론적 탐구와 수양 중시), 우주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신유학, 철학적 유학 • 『근사록(近思錄)』(주희, 1175) → 성즉리(性卽理), 이기론(理氣論) 중시, 거경궁리(居敬窮理)와 격물치지(格物致知) 강조 • 5경보다 4서(『논어』·『맹자』·『대학』·『중용』) 중시 → 『사서집주(四書集注)』(주희, 1177) • 군신 간의 의리, 대의명분 중시 → 화이론 강화, 신분제·지주제 정당화 • 중국·조선 → 정치 윤리이자 사회 윤리, 『주자가례(朱子家禮, 주희)』와 『소학(小學, 유자징)』의 보급, 향약의 실시와 서원의 건립
양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송(南宋)의 육구연이 심학(心學) 강조 • 명(明) 대 왕수인(= 호 ‘양명’, 1472 ~ 1528)의 완성, 실천적 유학, 『전습록(傳習錄)』(1511) ↳ 심즉리(心卽理, 마음이 곧 이), 양지(良知), 치양지(致良知), 지행합일(知行合一) 강조,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 • 사대부뿐만 아니라 서민에게도 큰 환영 → 지나친 공리공론으로 흐르는 폐단
실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明) 후기, 실사구시의 실용적 유학 • 『본초강목』(이시진, 의학, 1596), 『천공개물』(송응성, 산업 기술, 1637), 『농정전서』(서광계, 농학, 1639)
고증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말 청초 고염무(1613 ~ 1673), 황중희(1610 ~ 1695) 등이 선구적 역할 • 문헌에 근거한 실증적인 사실 규명 중시 • 청(淸)의 사상 탄압(문자의 옥)과 한인 지식층 회유를 위한 대규모 편찬 사업 과정에서 발달 ↳ 『고금도서집성』(옹정제, 1725), 『사고전서』(건륭제, 1773 ~ 1782)
공양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법적 유학, 캉유웨이(1858 ~ 1927)·량치차오(1873 ~ 1929) • 진보 사관, 변법자강 운동(= 무술변법, 1898)의 이론적 토대
신문화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5년 천두슈(1879 ~ 1942), 후스(1891 ~ 1962) 등이 『신청년(新靑年)』 발간 ↳ 유교를 버리고 민주주의와 과학을 배울 것을 주창 → 1919년 5·4 운동의 사상적 바탕

중국	남송	서원(書院)	• 성현의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해 세워진 사설 교육 기관
		향약(鄉約)	• 상부상조의 정신과 유교 윤리를 결합하여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 → 성리학적 규범이 서민에게도 확산
	명		• 민간에 유학 이념을 적극적으로 보급
			• 『성리대전(性理大全)』(1415) 등 성리학을 집대성한 문헌 편찬 → 과거 시험의 참고서로 널리 사용 • 지배 계층인 신사 → 지역 여론 주도, 향촌 사회에 유교 의례와 이념 확산에 이바지

한반도	고려	수용	• 안향(1243 ~ 1306), 원에서 『주자전서(朱子全書)』 도입, 성리학 소개, 1290년(충렬왕 16)
		확산	• 만권당(1314 ~ 1321)에서 원(元)의 학자와 교류, 이제현(1287 ~ 1367)과 이색(1328 ~ 1396)의 활동 • 사서가 과거 시험에 포함,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기반으로 불교 사원과 권문세족의 횡포 비판
	조선		• 건국의 이념적 기반, 국가의 통치 이념뿐만 아니라 국가 의례(『국조오례의』)와 사회 의례(『주자가례』)의 기준
			• 사림의 성장 → 향약의 보급(여씨 향약, 1517), 백운동 서원 건립(1543) → 향촌 사회에 성리학적 질서 확산
			• 성리학의 이해 심화
			✓ 이황(1501 ~ 1570) → 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 『성학십도』(1568) ✓ 이이(1536 ~ 1584) → 통치 체제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 방안 제시, 『성학집요』(1575)
	• 철학적 논의 → 사단 칠정 논쟁(1559 ~ 1566), 인물성동이논쟁(18세기)		
	• 조선 후기 → 부모 삼년상, 장남 중심의 재산 상속과 제사, 가묘와 사당 건립, 양자 제도 일반화, 친영(시집간다) 제도 확산		

일본	전래		• 가마쿠라 막부 후기 → 승려들 사이에서 연구
	학자	후지와라 세이카	• 원래 불교 승려 • 정유전쟁 때 포로로 잡혀온 강항(1567 ~ 1618)과 교류 → 『사서오경왜훈』 간행
		하야시 라잔	•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 정비 • ‘상하 정분(定分)의 이(理)’ 를 바탕으로 사농공상이라는 신분 사회의 틀 강화(『삼덕초(三德抄)』 저술) • 성리학의 관학화 주도, 에도 막부의 교육과 학문 관장
	한계		• 불교, 신도의 영향이 강성했기 때문에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지는 못함

① 성리학의 특징(『미래엔 교과서, 수능 특강』, p.77 · 55)

- 성(性)은 곧 이(理)이다. 천하의 이는 그 시작하는 곳을 살펴보면 선이 아닌 것이 없다. 희로애락이 밖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무엇이든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밖으로 나타나서 절도에 맞는다면 또한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 『근사록(近思錄)』
-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이(理)만이 존재할 뿐이다. 하늘이 그것을 얻어 하늘이 되고 땅이 그것을 얻어 땅이 되며 무릇 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이 또한 각기 그것을 얻어 성(性)을 갖춘다. …… 이처럼 만물에는 ‘이’가 흐르고 있으며 ‘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② 주희의 성리학(『금성 교과서, 수능 특강』, p.64 · 58)

- 성(性)은 본래 선한 것이니, 이(理)를 좇아 행하게 된다. …… 사람은 본래 이(理)를 가지지만 단지 기(氣)를 받아 물욕(物慾)에 가리어진다. 만약 격물치지(格物致知,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가 얹에 이른다.)하지 않게 된다면 …… 거듭 실패하게 된다. …… 배우는 자의 공부는 오직 거경궁리(居敬窮理, 내면적 집중과 엄숙한 태도에 머물며 이치를 궁리) 두 가지에 있다.
- 그는 학문을 연마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이 사서를 공부하는 것이라 하여 『사서집주(四書集註)』를 편찬하는 등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사서에 주석을 붙인 『사서집주(四書集註)』는 이후 유학자들에게 절대적 권위를 가진 책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어린 아이를 위해 성리학의 기본 개념과 수행 방법, 예절 등을 담은 『소학(小學)』을 제자들에게 편찬하도록 하였다.

③ 하야시 라잔의 『삼덕초(三德抄)』(『금성 · 미래엔 교과서, 수능 특강』, p.65 · 80 · 56)

- 인간 세계는 만사가 상하 관계 또는 전후 관계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진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세계를 예(禮)의 마음으로 꽉 채운다면 군신 관계가 어지럽지 않고, 그에 따라 마땅히 인간 사회 또한 평화롭게 안정될 것이다.
- 예란 사람이 처신을 삼가 서열이 흐트러지지 않음을 말한다. 젊은이가 늙은이를 공경하고 천한 자가 위계가 높은 자를 존중하는 것이 예의이다. ……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는 것이 천지(天地)의 예이다. 인간은 이 천지의 예를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갖고 있으므로 모든 일에는 상하 전후의 순서가 이다. 이 마음을 천지로 확장하면, 군주와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 인간의 관계가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다.

④ 양명학(『천재 · 미래엔 교과서』, p.81 · 77)

- 이치란 것은 모두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마음이 곧 이(理)이다. 마음이 사욕으로 가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천리(天理)이니, 조금이라도 밖에서 무엇 하나 가져와 보낼 것이 없다. 온전하게 천리를 따르는 이 마음이 어버이를 섬기는 일에 드러나면 이것이 바로 효도이고, 임금을 섬기는 일에 드러나면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 마음에서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토록 노력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 『전습록(傳習錄)』

5 이황과 일본 성리학(『천재·금성 교과서』, p.79·68)

오사카에 서적이 많음은 실로 천하의 장관인데, 우리나라 여러 명현의 문집 중에서 왜인이 높이고 숭상하는 것은 『퇴계집(退溪集)』만 한 것이 없다. 그래서 곧 집집이 외우고, 모든 선비가 필담으로 물을 때 반드시 『퇴계집』을 첫째로 삼았다. 도산 서원이 어느 고을에 속하는지 묻는 이가 있었고 …… 또 선생 생전의 기호도 묻는 등, 그 말이 심히 많아 다 기록하지 못한다. - 신유한, 『해유록(海遊錄)』

6 이이의 서원 향약(『천재·금성 교과서』, p.78·65)

1. 선행과 악행의 내용을 정해 두고 권선징악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른바 선행이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것, 형제간에 우애가 깊은 것,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친구 간에 화목한 것, 이웃 마을과 화평한 것, 유교 윤리에 맞는 행동으로 몸가짐을 잘하는 것 …… 등이다.
8. 나이가 30세 이하인 사람으로 글을 배우지 아니한 자는 모두 『소학』, 『효경』 등의 글을 읽게 하며, 읽지 않는 자는 벌줄 것을 논한다. - 『율곡전서』

7 성리학과 양명학

- 물(物)은 형(形)이고 칙(則)은 이(理)입니다. 형체는 형이하자(形而下者)이고 이치는 형이상자(形而上者)입니다. 사람이 태어남에 진실로 사물이 없을 수 없으니, 사물의 이치를 밝히지 못하면 성명(性命)의 바름을 따를 수 없고 사물의 마땅함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물에 나아가 지(知)를 구하고 이치를 구해야 합니다.
- 그는 『대학』의 격물(格物)을 ‘사물을 바로 잡는다.’ 라고 해석하였으며, 『대학문』이라는 저서를 남겼다. 또한 그는 사람이 누구나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선천적, 본원적인 도덕지(道德知)의 실현을 강조하며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성인이라고 주장하였다.
- 앎은 행위의 시작이고, 행위는 앎의 완성이다. 성인의 학문은 다만 하나의 공부이니, 앎과 행위를 두 가지 일로 나눌 수 없다. 성인의 학문은 지(知)와 행(行)으로 분리할 수 없는 본래 하나인 구체적인 삶을 온전히 경험하는 일이다.

[_____]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경(五經)보다 사서(四書) 중시 • 거경공리와 격물치지를 통한 본성 회복 강조 •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수인이 대표적 학자 • 심즉리(心卽理) 강조 • 지행합일의 수행 방법 강조



중화 사상 송은 요·금에게 매년 막대한 양의 세폐를 바쳐야 했다. 나아가 금이 회복을 차지하면서 송은 양쯔강 이남으로 쫓겨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대부들은 강렬한 화이 사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들은 중화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이민족에 대한 자주성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성리학은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하였다.



주희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주자라고도 불린다. 주희는 인간과 사회, 인간과 우주가 '이'라는 보편적인 원리에 의하여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면서 성리학을 완성하였다. 그는 "사서집주"를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원 대 이후 과거 시험의 교재로 채택되었다.



송 대의 사대부 송 대 과거제가 확대되면서 지배층으로 성장한 사대부는 성리학을 수용하여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사대부는 서원과 향약을 보급하여 성리학을 확산시키고 후학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백운동 서원 성리학은 고려 말에 전래되어 조선 시대에 성행하였다. 16세기에 사림들은 서원을 건립하고 향약을 보급하여 자신들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리학적 윤리의 향촌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야시 리잔 임진 전쟁과 정유 전쟁 때에 조선의 유학자가 포로로 잡혀오면서 일본에서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사서오경왜훈"을 간행하였고, 그의 제자인 하야시 리잔은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문묘(베트남) 15세기 중엽 레 왕조의 성종이 사서를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을 보급하려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성리학은 사회의 지배 이념으로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 중국

춘추~진 전국
공자
분서
갱유

~ 한 孝 → 충(황제) · 불교, 도교
유교 관학화 동중서
~ 남북조 불교, 도교 · 유학 쇠퇴
~ 당 「오경정의」 · 훈고학 집대성
: 유학 획일화

송

- ① 강남 지주 → 유학 공부
- ② 과거 → 사대부(문치주의)
- ③ 국방력 약화, 북방 유목 민족 압박, 중화사상대
- ④ 불교·도교의 형이상학 수용
도교 은둔, 불교 출가 비판
- ⑤ 우주 원리와 본성 탐구 → 신유학
- 주돈이(태극) → 장재(기) → 정호·정이 → 주자
- 성즉리, 이기론 : 거경궁리 : 격물치지
- 주희, 「사서집주」(원·명·청, 조선의 과거 교재)
- 명본론(상하관계), 화이관(이민족과 중화 차별), 지주전호제 정당화

명

성리학의 관학화
「성리대전」(영락제)
· 확산 : 서원, 향약
⇕
cf) 양명학
明, 왕양명(왕수인)
↳ 남송 육구연의 심학 수용

(명말청초)

경세치용
실질 숭상
객관 강조
음운·경학
역사·지리
문헌 고증

청

고증학 (실증)

• 한반도

고려

- ① 안향, 원, 「주자전서」, 1290
- ② 이세현, 백이정, 이색, 정몽주
- ③ 불교·권문세족 비판
- ④ 만권당(원 학자 교류, 1314)

조선

- ① 국가·사회 지배 이념
- ② 「사서집주」(과거 교재)
- ③ 이황, 「성학십도」, 일본 영향
이이, 현실 개혁, 「격몽요결」
- ④ 백운동 서원(주세붕, 1543)
향약(사림, 향촌, 1517)
- ⑤ 논쟁[태극, 주리·주기 논쟁]
: 예송(상복), 인물성동이 논쟁

- ⑥ 명·청(사절단), 일본(통신사)
- ⑦ 『주자가례』(관혼상제), 가묘(家廟)
- ⑧ 중기 이후
: 동성불혼, 가부장적 가족 질서 강화
: 사당(祠堂)
- ⑨ 의학 서적
: 『향약집성방』(1433)
: 『동의보감』(1613)

< 조선 후기 >

- ① 윤희, 박세당 : 독자적 경전 해석(→사문난적)
- ② 중농학과 실학 : 유형원, 이익, 정약용(목민심서, 경세유표)
- ③ 중상학과 실학 : 청(淸) 문물 수용, 이용후생 강조
: 홍대용(중국 중심 세계관 비판)
: 박지원(「열하일기」, 수레·선박 사용)
: 박제가(「북학의」, 소비 = 우물 비유)

• 일본

가마쿠라 막부(12~14C)

·성리학 전래

~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유전쟁 : 강항 ~ 후지와라 세이카 → 「사서오경왜훈」

에도 막부(17~19C)

하야시 라잔(1583 ~ 1657) ↔

주자의 해석에 이의 제기

- ① 상하 질서(상하 정분의 이)
- ② 막부 제도·의례 정비
- 야마자키 안사이(1618 ~ 1682)
- ① 「사서집주」, 「근사록」 강조
- ② 신토를 이기론으로(성리학적) 해석

- 고학 : 이토 진사이(1627 ~ 1705), 고대 유학으로 복귀
- 국학 : 모토오리 노리나가(1730 ~ 1801), 국가주의적
↳ 영향 - 일본 우월, 존왕양이, 국가 신토(일왕 충성)
- 양명학 : 구마자와 반잔(1619 ~ 1691), 막부의 세습 비판

cf. 일본 유학
- 가묘·종묘無, 에도막부 유시마성당(대성전, 교육, 1690)
- 성리학 일본 실정에 맞게 해석, 훗날 양이론에 영향
- 결혼 등 의례는 신토, 장례·제례는 불교식

• 베트남

리 왕조(11~13C)

문묘 설치(1070)
과거제 실시(1075)
국자감 설치(1076)

찐 왕조(13~15C)

국학원 설치
↳ 사서오경 교육

(후) 레왕조(15~18C)

타인 똥(재위 1460 ~ 1497) : 신유학 보급(사서 중심)
과거제 → 진사제명비[1442(최초), 1484 ~ 1787, 하노이 문묘 안에 설치, 과거 합격자 기록]

* 전반적으로 일본처럼 성리학의 영향이 제한적

개념 Check

- ① 당 때에는 『_____』가 편찬되어 훈고학이 집대성되었다.
- ② 남송의 () (1130 ~ 1200)는 우주의 보편 원리와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 ③ 성리학에서 인간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시한 대표적인 수양론으로 거경공리와 ()가 있다.
- ④ 선현의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해 세워진 서원과 향촌 자치 규약인 ()은 성리학 확산에 기여하였다.
- ⑤ 고려 말에 성리학을 수용한 ()은 불교와 권문세족의 폐단을 비판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⑥ 고려 충선왕 때 원(元)의 수도인 대도에 ()이 설치되면서 고려와 원의 학자들이 교류하였다.
- ⑦ 조선 시대에는 백성의 교화를 목적으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_____』가 편찬되었다.
- ⑧ 주세붕이 세운 () 서원은 1550년 소수 서원으로 사액되었다.
- ⑨ 후지와라 세이카는 조선의 강항과 교류하면서 『_____』을 간행하였다.
- ⑩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였던 ()은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 정비에 기여하였다.

▶ 다음 책을 남긴 사람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일러 도(道)라 하며, 도를 뒤는 것을 일러 교(教)라 한다.

명(命)이란 영(命)과 같다. 성은 곧 이(理)이다. 하늘은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화생(化生)한다. 기(氣)로써 모양을 만들고 이 역시 여기에 부여되니, 명령과 도 같은 것이다. 이에 사람과 사물의 태어남이 각기 부여받은 바의 이를 얻음으로써 음양오행의 덕을 삼으니, 이른바 성이라 하는 것이다.

- ① 격물치지를 수양의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 ② 황제가 주관하는 전시를 도입해야만 한다.
- ③ 『성리대전』을 과거 시험 출제에 활용해야 한다.
- ④ 신사들을 향촌 사회의 운영에 참여시켜야 한다.
- ⑤ 수도에 최고 교육 기관인 국자감을 두어야 한다.

▶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수능 특강 변형』, p.59)

그는 스승 후지와라 세이카의 추천으로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알현하였다. 이후 쇼군에게 경서를 강의하고 막부의 관리로 임용되어 조선의 통신사 응접, 외교 문서 작성, 역사서 편찬 등에 관여하였다. 성리학의 관점에서 불교를 비판하고, 일본 성리학의 보급과 제자 양성에 힘썼다.

- ① 『사서집주』를 편찬하였다.
- ② 향약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 ③ 신토를 이기론으로 해석하였다.
- ④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였다.
- ⑤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였다.

▶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옆 그림은 중국 무이산(武夷山)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그린 조선 시대 산수화이다. 남송 시기에 성리학을 집대성한 **(가)**은(는) 이곳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저술 및 강학 활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무이구곡은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에게 학문의 본산이자 이상향으로 인식되었다.

- ① 『격몽요결』을 편찬하였다.
- ②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 ③ 무사 중심의 신분 질서를 합리화하였다.
- ④ 치양지와 심즉리를 강조하였다.
- ⑤ 학문하는 사람이 맨 처음 배워야 할 덕행의 지름길로 『대학』을 강조하였다.